

International Day

2013年9月22日

国際ミサ説教

幸田和生 東京教区補佐司教

先日、こういう話を聞きました。

ある知的ハンディキャップの人たちの施設で、軽い障がいを持った人たちに、お金の価値を教えようと思いました。社会的自立のために必要だからです。ある若者に、10円玉と50円玉の価値の違いを教えようと思いました。でもいくら教えても彼は10円玉のほうが50円玉より大切だと言うのです。大きさのせいでしょうか？ 彼に「なぜ？」と聞いたら、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50円玉では電話がかけられない。でも10円玉だと電話でお父さんの声を聞くことができる。だから10円玉のほうがいい」というのです。(分かりますか？ 携帯電話やプリペイドカードが普及する前は、みんなコインで公衆電話を使っていましたね。その時代の話です) 彼の考えは間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間違っているのはわたしたちの考え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わたしたちはお金がたくさんあればいいと考えます。日本だけでなく、世界中の人がそうかもしれません。少しでも多くのお金を手に入れるために、みんな一生懸命です。お金があれば、あれもできる、これもできると考えるからですね。あれも買えるし、これも買える。そしてお金はいくらあっても足りない。お金を手に入れること自体が目標になる。これがお金が神になった状態です。これを聖書では「マンモン(mammon)」と言います。

イエスは今日の福音で「神とマンモンとに仕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

おっしゃいます。一番大切なことはなんですか、とイエスは問いかけるのです。お金がいらぬとは言いません。でもそれは何のためですか、お金が一番大切ですか、それよりも大切なのは何ですか、イエスは強烈に問いかけています。

9節には「不正のマンモンで友達を作りなさい。そうしておけば金がなくなったとき、あなたがたは永遠の住まいに迎え入れてもらえ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友達を作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貧しい人を助けて貧しい人を友達にし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がたは神のもとで永遠の救いにあずか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意味でしょう。それだけでなく、そうすることをおして「神さまを友達にする」という意味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お金は人とのつながりを作るためなんですね。ちょうど、あの障がいの青年のように。彼にとってお金とは、お父さんと電話で話すためのものでした。わたしたちにとっても、お金は、人とのつながりを作るためのもの、そして神とのつながりを深めるためのものだ。その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見失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今年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デーのテーマは、「Migrations: pilgrimage of faith and hope」です。これは昨年の秋にベネディクト 16 世教皇が2013年の「世界難民移住者の日」のために決めていたテーマです。日本語では「移住：信仰と希望の旅」と訳されていますが、「pilgrimage(巡礼)」なんですね。

移住者の多くは経済的な理由で、国を超えた移動を余儀なくされた人かもしれない。政治的な圧迫やその他の厳しい理由があるかもしれない。多くの移住者の置かれている状況は厳しいものがあります。その多くの移住者を支えているものは信仰です。神が、このわたしたちを決して見捨てないという信仰。愛である神は、どんな困難の中にあってもわたしたちとともにいてくださる、という信仰が難民や移住者を支えてい

ます。わたしはいろいろな難民や移住者の方に出会って、その人々の中に本当に強く、深い神への信頼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神さまがいるから大丈夫」何度、そう聞かされたことでしょうか。

そして「希望」。さまざまな理由で国境を越えて移動する人々にとって、希望はとても大切です。必ずよいものが与えられる、今は苦しくても、いつか神がよいものを与えてくださる、その希望が移住者を支えています。この希望ということも、多くの移住者から学ぶ機会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

そして、わたしたちが信仰と希望をもって歩むとき、そこに本当の意味で神との出会いがある、ベネディクト 16 世教皇が Migration を Pilgrimage だというのはそういう意味です。

アブラハムは移住者でした。モーセも移住者でした。ヨセフとマリアも移住者でした。その中で信仰と希望を持って生き、神との出会いを経験しました。

ヘブライ人への手紙の 11 章 1 節に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信仰とは、望んでいる事柄を確信し、見え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です。」

目に見えるものの典型はお金でしょう。目の前の、目に見えるものではなく、目に見えないもっと大切なものに心を向けて歩む。信仰をもって、希望をもって、神に向かって歩いて行く。わたしたちの教会はそういう旅をしている神の民です。

この旅の中でわたしたち(外国から来た人も日本人も)はたまたま東京や千葉という町に滞在しています。そして今日ここでさまざまな国や地域から来た人々が出会って一緒に神を賛美しています。このわたしたちが信仰と希望と愛のうちに一つになって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がわたしたちを強め、相互の理解とすべての人々の平和のために働く力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心を合わせて祈りましょう。

アーメン。

International Day

22 September 2013

Homily by

Bishop James K. Koda

Auxiliary Bishop
of the Archdiocese of Tokyo

The other day I heard the following story:

In an institution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hey tried to teach the value of money to the slightly handicapped, because this is necessary for them to function independently in society. They taught a young man the difference between 10 yen and 50 yen coins. However, no matter how much they explained, he would say that 10 yen coin is more valuable than 50 yen coin. Was that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ize? No, that wasn't the case. He insisted that a 50 yen coin is no good for the public telephone. (This was before we started to use prepaid cards or cell-phones.) Was he wrong? Rather, aren't we the ones that are mistaken?

We think that the more money we have, the better. This is true not only for the people in Japan but everybody in the world may think so. Everybody works hard to get more money. That is because if we have money we can do this or that and buy this or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amount of money we want. Getting money itself becomes our end. In the Scriptures, money is called "mammon."

Jesus in today's Gospel (Luke 16) says: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mammon)." He is asking w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e doesn't say money

is unnecessary. Rather, he challenges us by asking, "What is money for? Is mone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re anything that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Jesus challenges us with these questions.

Luke 16: 9 reads: "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dishonest wealth so that when it is gone, they may welcome you into the eternal homes." What is the meaning of "making friends"? It means to help the poor and make friends with them. Then you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ternal salvation of God. Not only that, it may also mean that by doing so you can make friends with God.

Money connects people, as we saw in that young man that I introduced at the beginning. For him money is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his father on the phone. For us, too, money is for creating links with people and for deepening the relationships with God. Let us not forget this.

This year's theme for the International Day is "Migration: Pilgrimage of Faith and Hope." This is what Pope Benedict XVI had chosen for the 2013 "World Day of Refugees, Migrants and People on the Move." In Japanese it is translated as "Migration: Journey of Faith and Hope," but actually it is "pilgrimage."

Many of the migrants had to cross national borders for economic reasons. There may be other reasons such as political oppression or other difficult situations. They are placed in seriously difficult conditions. What encourages many of these migrants is faith, the faith that God will not abandon them. The God of love will be with us no matter how difficult the

circumstances are. Such faith supports migrants and refugees. I have met many of them and witnessed their solid and deep trust in God. How many times I was told, "God is there so it's all right."

And also "Hope." Hope is very important for those who move across borders for various reasons. God will certainly give good things at some time in the future, even if suffering surrounds them at the moment. This hope supports them. I have learned a great deal about such hope from many migrants. When we walk with faith and hope, we encounter God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Here lies the reason why Pope Benedict XVI called "Migration," "Pilgrimage."

Abraham was a migrant. So was Moses. Joseph and Mary, also. They lived with faith and hope and encountered God.

Hebrew 11:1 reads: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The typical example of what is visible is money. But we walk with our eyes set not on the immediate and visible things but on something more important that is not visible. We proceed towards God with faith and hope. Our church is this kind of People of God on pilgrimage.

In this pilgrimage we (those who come from abroad and those who are Japanese as well) happen to live in Tokyo or Chiba. Today, we from various nations and areas are gathered here to praise God together. Let us pray that the Holy Spirit may strengthen us so that we can walk as one body in faith, hope, and love and that we may be able to work for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for all people.

인터내셔널 데이 2013

동경교구
인터내셔널 데이 미사 강론

Bp. James K. Koda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적장애인들의 시설에서,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10 엔 동전과 50 엔 동전의 가치 차이를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가르쳐도 그 지적장애인은 10 엔 동전이 50 엔 동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기 때문일까요? 그에게 「왜?」라고 물으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50 엔 동전으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 엔 동전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10 엔 동전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핸드폰이나 전화카드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모두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이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뿐 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모두 열심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돈은 얼마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돈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되어 그것을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만몬 : 재물 (mamm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입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강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9 절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들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뿐 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친구로 삼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돈은 사람과의 유대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장애인 청년과 같이. 그에게 돈은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돈은 사람들과의 유대를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하느님과의 유대를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올해 인터내셔널 데이 테마는, 「Migrations: pilgrimage of faith and hope」입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에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께서 2013 년의 「세계 난민 이주 자의 날」을 위해서 정하신 테마입니다. 일본어로는 「이주 (移住): 신앙과 희망의 여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pilgrimage (巡礼): 순례」입니다.

이주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국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이동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그 밖에 힘겨운 이유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주자의 처해진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 많은 이주자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앙.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이 난민과 이주자들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 난민과 이주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안에 정말로 강하고 깊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얼마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요.

그리고 「희망」.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좋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희망이 이주자들을 버티게 만듭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도 이주자들로 부터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님께서 Migration (이주) 를 Pilgrimage (순례) 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주자였습니다. 모세 또한 이주자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이주자였습니다. 그 안에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11 장 1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형적인 것은 돈입니다. 눈앞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갑시다.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교회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연히 동경이나 치바 라고 하는 동네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신앙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서로의 이해와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힘을 주시기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아멘.